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21. 7.30(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유럽

- **英 법원, 극우주의 2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 7.21 英 법원은 극우주의 단체 운영 및 테러자금 모금·테러 출판물 유포 등 15개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된 24세 남성에게 “대중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
 - * 同인은 '18년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
- **英-佛, 해상테러 예방·대응 안보협정 체결**
 - 7.27 영국과 프랑스는 여객선 테러 등 해상테러의 효과적인 예방·대응을 위해 △잠재적 위협정보 공유 △테러발생시 신속한 공동 대응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해협 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
 - * 英 정부는 同 조약은 해협內 테러 위협과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

미주

- **美 검찰, 캘리포니아 ‘유대교회당 총격범’ 종신형 구형 예정**
 - 7.20 美 샌디에이고 검찰은 캘리포니아주 유대교회당 총격범 「존 어니스트」*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사형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하기로 했으며, 이는 피해자 및 유족들과 사전 협의된 것이라고 발표
 - * 同인은 '19.4.27. 유월절(유대인 축제) 마지막날 유대교회당에 총기를 난사해 1명 사망·3명 부상
- **美, 아프간 이어 이라크에서도 철군 예정**
 - 美 WSJ은 ISIS와의 대테러전을 위해 '14년부터 이라크에 주둔해오던 미군(약 2,500명)의 철수계획을 美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美 정부가 ‘반중(反中)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
 - * 미군은 '03년 2차 걸프전 이후 주둔해오다 '11년 철수했으나, '14년부터 재주둔

아 · 태평양

- 中, 중국인 탑승 파키스탄 버스 폭발 배후 '파키스탄 탈레반' 주장
 - 7.21 中 대테러 전문가 「리웨이」는 지난 14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버스 폭발사건*과 관련, 수집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키스탄 탈레반'(TTP)이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 7.14 파크툰와췌에서 버스가 폭발해 중국인 9명을 포함해 13명 사망·30명 부상
- 아프간, 탈레반 활동 억제 위해 '야간 통행 금지령'
 - 7.24 아프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美軍의 본격적인 철수 이후 탈레반의 급속한 세력 확장과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발표
 - * 아프간 34개州 중 31개州에서 야간 통행금지(22시~익일 04시) 발령
- 검찰, '佛대사관 협박전단 부착 무슬림'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 7.22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벽에 “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것” 내용의 협박성 전단을 부착해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러시아인(26세)과 키르기스스탄인(26세)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중 동

- 이라크, 차량폭탄 테러 용의자 체포
 - 7.24 이라크 총리는 지난 19일 바그다드 동부 사드리시티(시아파 거주 지역)에 위치한 시장에서 이슬람 명절 '이드 알 아드하'를 준비 중인 인파를 겨냥해 차량폭탄테러(사망 35, 부상 60명)를 자행한 테러범들을 체포했다고 발표
 - * 테러범의 인원과 신원은 미공개, 사건 직후 ISIS가 배후를 자처

아프가니스탄, 부통령 후보 겨냥 테러

- '19.7.28 아프간 수도 카불市에서 '그린 트렌드' (Green Trend) 당사를 겨냥한 차량폭발과 총격 등 복합테러가 발생, 20여명 사망·50여명 부상
 - * '그린 트렌드'는 아프간 정보부(NDS : National Directorate of Security) 부장 출신 「암룰라 살레」 (Amrullah Saleh, 47세)가 이끄는 정당
 - 차량 폭발 직후 무장 괴한들이 건물 안으로 난입해 보안군과 약 6시간 동안 교전을 벌이다 현장에서 전원 사망
 - 아프간 대통령으로부터 부통령으로 지명받은 '그린 트렌드' 당수 「살레」는 테러 당시 건물내에 있었으나 비상 탈출(우측 팔 부상)
- 전문가들은 9월 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살레」 부통령 후보를 겨냥한 반대세력의 테러로 추정
 -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간 테러 발생 동향과 부통령 후보 「살레」의 反탈레반-알카에다·反ISIS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탈레반 또는 ISIS 소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 「살레」는 90년대 후반부터 '對탈레반 전선 북부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정보부장 근무 당시 탈레반·알카에다 추적업무에 집중

< ISIS(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

- (목 표) 시리아·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04. 4월 결성)
 - * 테러단체 지정 : UN('04.10월), 미국('04.12월), 캐나다('12.8월)
- (조직규모) 약 14,000~18,000명 추정('19.8월, 美 국방부) * 전성기 최대 약 7만명
- (연계세력) ISIS-호라산·西아프리카·시나이 지부 등 20여개
- (활동지역)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
- (활동수법) '19.3월 시리아內 점령지 상실 이후,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
- (주요테러) ① '15.11월 프랑스 파리 공연장·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사망 130, 부상 350)
 ② '17.12월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총격테러(사망 305, 부상 128)
 ③ '19.4월 스리랑카에서 ISIS 추종단체의 연쇄테러(사망 259, 부상 500)

